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주간 항공편 수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CMA CGM,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2. 북미, 2020년 3분기 복합운송 물동량 회복세
3. 미국 화주기업, 운송수단 불안과 운임 상승으로 '이중고'



공지사항

「16차 해외사업 투자설명회 - 미국편」 유튜브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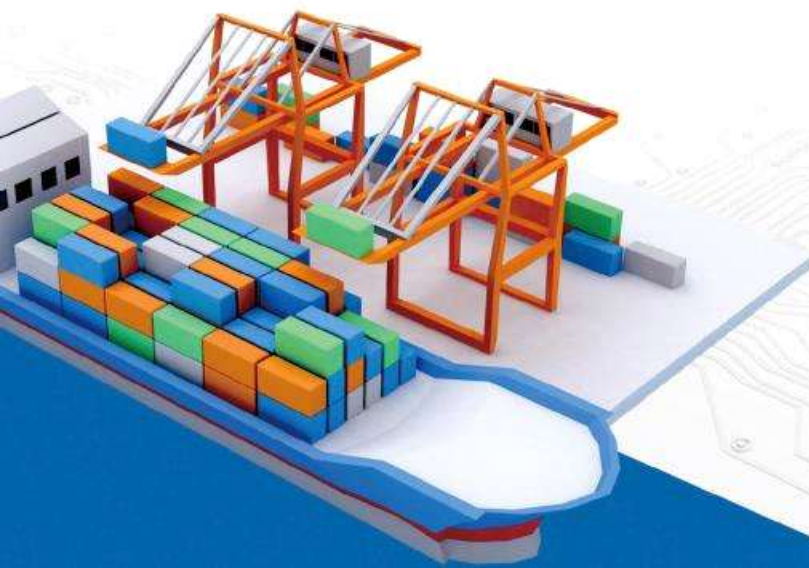
- 일시: 2020.11.4(수) ~ 11.18(수)

- 유튜브(Youtube) 링크: <https://youtu.be/czfBqRiHcM>

명사 스피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해사분야의 디지털화·탈탄소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사산업의 전환기에 새로운 기술의 흐름을 선도해 국내 기업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
(2020. 11. 2. /이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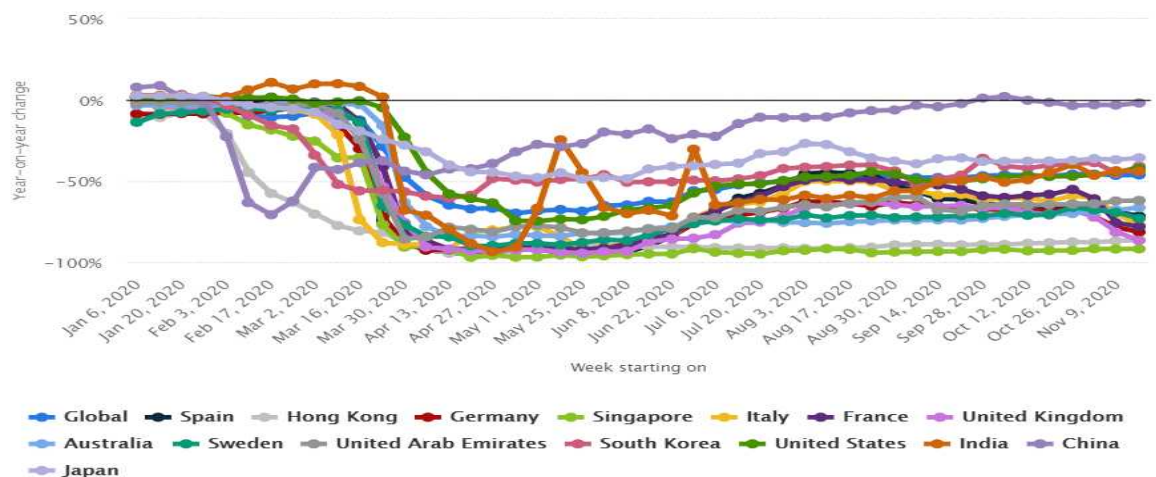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주간 항공편 수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

2020년 11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주요국 주간 항공편 수 변화율

(단위: %)



자료: Statista

- 세계적인 항공 정보 제공사인 OAG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예정된 주간 항공편이 감소함
 - 2019년 11월 18일 주간 대비, 2020년 11월 16일 글로벌 주간 항공편은 46.3% 감소함
 -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항공사가 특히 타격을 받은 주간은 2020년 2월 17일에 시작한 주간으로 전년 대비 70.8% 감소함
 - 코로나19 이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산업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였음
 - 2020년에서 2040년 사이 미국 상업용 국제선 항공 수송실적(Revenue ton-miles, RTM)의 연간 예상 성장률은 약 4%였음
 -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북미 항공기 정비업(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MRO) 시장 규모는 2020년 22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북미 MRO 시장은 약 120달러 규모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충격으로 항공운송 시장의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질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로 화물운송보다 여객운송이 더 큰 타격을 입었으며 2020년에 약 3,14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됨
 - 경기침체, 엄격한 여행 제한, 여행에 대한 여행객의 신뢰 감소 등의 요인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느린 속도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

참고자료 : www.statista.com(검색일: 2020.11.18.)

김한나 연구원

051-797-4670, h.kim@kmi.re.kr



물류정책·산업동향

CMA CGM,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프랑스 선사 CMA CGM은 LNG 추진 선박에 투자하고 화주에게 탄소배출량을 즉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를 공개함
- 새로운 서비스는 고객들이 탄소배출을 감축 및 상쇄하고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¹⁾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
 - 화주와 무선박운송인은 LNG 또는 바이오연료 추진 선박을 통한 화물 운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화물운송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15%에서 85%까지 줄일 수 있음
 - CMA CGM은 현재 7척의 LNG 추진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18척을 추가 발주한 상황임
 - CMA CGM 마르크 부르동(Marc Bourdon) 부사장은 내년부터 화주와 무선박운송인이 탄소격리 프로젝트와 배출량 추적을 통해 탄소 상쇄물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함
- 이러한 움직임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 업체를 통해 생성되는 배출량(Scope 3)²⁾을 즉각 감축하고자 하는 화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마르크 부르동 부사장은 탈탄소화는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화주들이 이러한 에너지 전환에 가까이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함
- LNG가 여전히 오염원을 배출하는 연료이고, 장기적인 대체연료로서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MA CGM은 LNG 추진 선박에 투자하는 유일한 선사임
 - 머스크 또한 바이오연료 운송을 제공하고, 대부분의 주요 선사들은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 DHL은 지난 10월에 모든 LCL 해상운송의 탄소배출 중립을 위해 일부 컨테이너선의 연료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말함
 - IMO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2008년 대비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소, 바이오연료, 암모니아 등 다양한 연료들이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체연료로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음

■ 참고자료 : www.joc.com (검색일: 2020.11.18.)

전서연 전문연구원

051-797-4615, jwh0321@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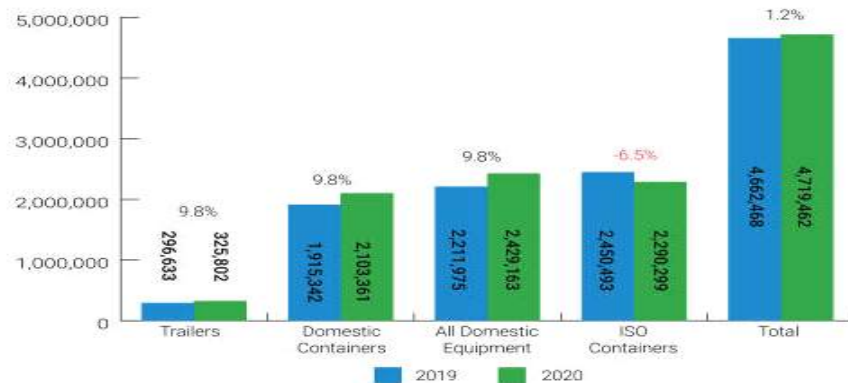
1) 개인 또는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말함

2) 온실가스 배출원은 Scop1(직접 배출), Scope 2(간접 배출), Scope 3(기타 간접 배출)으로 분류되며 Scope 3은 기업 활동의 결과이지만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시설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함

북미, 2020년 3분기 복합운송 물동량 회복세

- 지난 11월 3일 북미복합운송협회(IANA)가 발간한 Intermodal Quarterly에 따르면 6분기 연속 감소하던 북미 지역 복합운송 물동량이 2020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함
 - 3분기 총 물동량은 4,719,46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국내 컨테이너는 2,103,361개로 전년 동기 대비 9.8%, 트레일러는 325,802개로 9.8% 증가하였지만, 국제운송은 2,290,299개로 전년대비 6.5% 감소함
 - IANA는 3분기 복합운송 물동량의 증가 요인으로 전자상거래의 물동량이 증가 등으로 물동량이 9.8% 증가해 2분기의 8.0% 감소세가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함
 - IANA는 보고서에서 국제운송은 2분기(전년 동기 대비 15.4% 감소)와 비교했을 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감소한 상태이며, 미 서안 지역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하였지만 해당 지역의 물동량은 매년 9.2% 감소하고 있다고 전함
-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복합적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음
 - IANA의 CEO Joni Casey는 "재고 보충과 전자상거래 물동량의 증가, 트럭운송에서의 일부 용량제한으로 인해 복합운송 물동량이 이번 분기에 증가할 수 있었고, 이 추세는 향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함
 - 국내 컨테이너 물량은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레일러는 약 6% 감소하여 총 복합운송 물동량은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019년 및 2020년 3분기 미국 복합운송 물동량 비교



자료 : www.intermodal.org/

참고자료 : www.logisticsmgmt.com(검색일: 2020.11.4.)

이지원 연구원

051-797-8610, jiwon@kmi.re.kr

미국 화주기업, 운송수단 불안과 운임 상승으로 '이중고'

- 미국 수출입 화물운송 시장의 운임이 급등하여 화주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음
 - 해상운송의 경우 화물 증가, 선석 부족 등으로 컨테이너 운임은 최고치를 기록함
 - 이는 미국 내륙 운송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철도, 트럭 등 복합운송 시장의 운임 상승을 초래함
 - 항공화물 시장도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운항 감소로 화물수송 공급량(belly cargo capacity)이 줄어들어 운임이 크게 상승함
-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4분기 성수기를 맞아 운송수단 확보도 어려운 실정임
 -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공급사슬 등이 타격을 받았으며, 수송자원, 인력 등이 분산됨
 - 이에 따라 미국 화주기업들은 화물운송 시장의 불안으로 중장기보다는 단기 운송 계약을 모색하고 있음
 - 한편 2021년에도 고운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류비 관리에 비상이 걸렸음
- 내년에도 운임 강세로 컨테이너 운임은 20~30%, 철도·트럭 운임은 5%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 특송업체인 페덱스(FedEx)는 내년 1월부터 운임을 4.9% 인상하기로 결정함
 - UPS 등도 운임인상 또는 할증료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한편 철도업체인 유니온 퍼시픽(Union Pacific)은 지난 여름부터 물동량 증가로 할증료를 부과해오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화주기업들은 다양한 운송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철도·트럭 등 복합운송 분야에서도 해상운송에서 이용하는 단기 계약, 핵심운송인, 물량예측, 3자물류(3PL)·대체 운송인 확보 등이 검토되고 있음
 - 트럭운송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운임상승 압박이 여전히 높으며, 항공도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 코로나19 백신 운송 등의 대규모 수요가 예상됨
 - 특히 코로나19 백신 생산·운송·유통이 현실화되면 항공뿐만 아니라 콜드체인 물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급사슬과 화물운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참고자료 : www.joc.com(검색일: 2020.11.4.)

최영석 부연구위원

051-797-4391, yschoe@kmi.re.kr

「16차 해외사업 투자설명회 - 미국편」 유튜브 공유

-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16차 해외사업 투자설명회 - 미국편」을 유튜브 채널에 공유하였으니 적극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 투자설명회는 미국 동부지역 투자유망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를 비롯한 미국 조지아 주 정부, 미국 우리 물류기업 관계자, 국제물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Zoom을 통한 실시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유튜브(Youtube) 채널에 설명회 영상을 공유하였습니다. 영상은 11.4(수)부터 11.18(수)까지 게재될 예정입니다.

- 유튜브 채널 및 투자설명회 링크
- 공유 기간 : 2020. 11. 4(수)~11.18(수)
 - 주제 : 미국 동부 지역의 유망 투자사업 정보공유 및 관계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설명회 링크 : <https://youtu.be/czfBqRiHcM>
 - 유튜브 채널 :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검색 혹은
<https://www.youtube.com/channel/UCzU7uOfuXJVd9VeJPK0IAeg>

프로그램	
발표1	미국 3PL 물류시장의 특성 및 진출 유망지역 전망 박남 (DSF L&I, 대표)
발표2	미국 동부지역 항만물류시장 특성 및 진출 유망사업 전망 John Park (Webtrans Logistics Inc., 대표)
발표3	조지아주 물류 및 운송 생태계 (Georgia's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Ecosystem) Emily Butler (Center of Innovation for Logistics Georgia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국장)
발표4	사바나항 가든시티 터미널: 미국 동남부 관문 (Port of Savannah Garden City Terminal: The Southeast Gateway for the U.S.) Stacy B. Watson (Economic & Industrial Development Georgia Ports Authority, 이사)
발표5	미국 물류산업의 허브, 조지아주 Peter Underwood (State of Georgia-Korea office, 소장)
발표6	미 동안 Gate Port별 물류현황 및 향후 예상 최준석 (HMM 미주본부, 상무)

- 투자설명회 발표자료(PPT)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요청 시 공유 가능함
□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051-797-4770, 051-797-4588)로 문의 바람